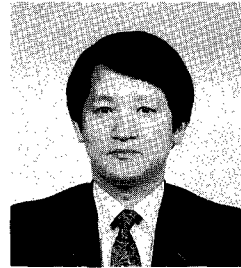


# 물가의 우등생 '계란'



박 규 덕  
(주)대해양행 부장

**역**시 한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이다. 불과 1년 6개월 전 풍전등화와 같았던 경제 위기 속에서 보란 듯이 어려움을 떨쳐 버리고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우리 나라를 세계 각국에 선 놀라운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경기회복과 함께 당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증시로의 풍부한 자금이동이 주식 시장의 폭발적인 활황 장세를 이어나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 무드가 전반적인 양계 산업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산란

계 및 계란업계의 시설투자 및 많은 재투자의 길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표1. 우리 나라의 인구 변화 추세(단위 : 천 명)

연 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인구(A)	37,436	40,448	43,411	44,609	44,966	45,991	46,430	46,858	47,275
증감율	100	108	116	119	120	122	124	125	126
수도권인구(B)	13,298	15,820	18,587	20,189	-	-	-	-	-
B/A	35	39	43	45	-	-	-	-	-

\* 통계청 발표자료

표2. 우리 나라 계란 소비량 및 1인당 계란 소비량(단위 : 톤, 개)

연 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p)	1999(p)
총소비량	243,334	287,180	393,320	453,884	469,873	498,800	475,637	509,900
계란숫자(억개)	42	50	68	78	81	86	82	88
1인당 소비량	112	122	145	157	180	187	177	188
증감율	100	109	129	140	161	167	158	168

\* poultry int'l, 발표자료, (p): 추정 및 예상치, 58g/개 기준

사실 IMF 관리체제로 접어들면서 산란계 업계에서도 많은 우려를 했으나 최근까지의 추세로 보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경제위기를 견뎌낸 우리나라의 계란 생산량 및 소비 형태는 그 동안 어떻게 변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 인구 증가에 비춰 본 계란 소비량 변화는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4천만 명을 넘어서 인구가 1990년 이후부터 매년 0.7~0.8%씩(44만 명/년)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엔 연간 33만 명 씩, 그리고 2010년 이후엔 매년 17만 명 씩 증가하다가 2028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선진국 스타일로 인구 감소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반면, 계란 생산 및 소비는 198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7년 말 시작된 IMF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엔 예상대로 1인당 소비량이 전년도에 비해 약 10개정도 감소했으며 금년도엔 다행히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다시금 1997년도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최근 불거져 나온 수입 축산물의 다이옥신 파동이 변수로 작용한다면 순조로운 증가세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산란계 사육수수는 1980년 말 2,684만수였던 것이 1985년 3,318만 수 그리고 1990년 4천만 수를 넘어서 1997년 4,819만수로

표3. 산란계 사육수수 변화추세(단위 : 만 수)

연 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p)
사육수수	2,684	3,318	4,243	4,633	4,634	4,819	4,592	4,700
증 감 율	100	124	158	173	173	180	171	175

표4. 연도별 육추사료 및 산란용 사료 생산 추세(단위 : 천 톤)

연 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P)
육추사료	296	347	390	359	360	307	343
증감율	100	117	132	121	122	104	116
산란용사료	1,126	1,738	2,016	2,089	2,016	1,887	2,038
증감율	100	154	179	186	179	168	181

\* 산란용 사료 : 산란계+종계  
(P) : 추정 또는 예상치

최대 사육수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와 금년도엔 역시 IMF 외환 위기로 사육수수가 5~9%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직결된 배합사료의 생산 실적을 분석해 보면 1980년도에 296,000톤 수준이었던 육추 사료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최대 39만 톤을 기록한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31만~36만 톤 사이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산란사료 및 종계 사료(이하 산란용 사료) 역시 1996년 209만 톤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든 후 189~204만 톤 사이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로 봐도 역시'98년은 산란계 사육농가의 사육 의지 결여와 사회 전반적인 총체적 불황으로 인한 시설투자 감소 등 줄어든 사육수수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저하가 겹쳐 우려와는 달리 자연스럽게 계란생산량 조절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 의외로 높은 난가가 유지되었던 한 해였다.

하지만 금년도 전반기 육추 사료 생산량으로 미뤄볼 때 산란용 사료 생산량이 거의 1997년도 수준(202만 톤)까지 늘어난 경기회복이 완

표5. 우리 나라 1인당 국민소득 및 축산물 물가지수 변화 추세(단위 : 달러)

연 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p)
금 액	1,597	2,242	5,883	10,037	10,543	9,511	6,300	8,600
증감율	100	140	368	628	660	596	394	539
축산물 물가지수 ('95년100)	53.6	74.8	95.6	100	100.4	94.9	98.6	-

\* 한국은행 통계자료 및 재경부 추계

표6. 난가 변동 추세(서울지역, 특란 기준)

연 월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1	2	3	4	5	6
원/개	58	63	53	65	78	77	86	98	99	113	103	108	95	87
증감율	100	109	91	112	134	133	148	169	171	195	178	186	164	150

\* 대한 양계협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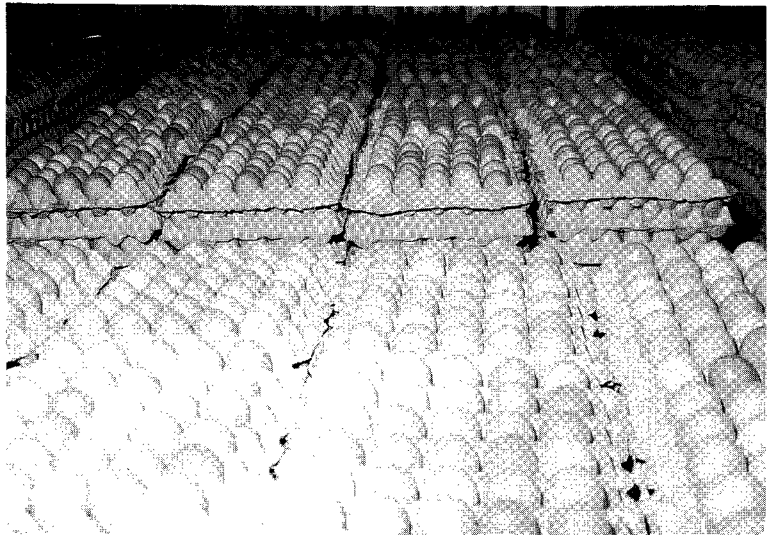
전하게 안 된 상태에서 계란 생산량만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난가(卵價)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IMF 외환 위기로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마감하고 급전직하한 1997년은 물론 1998년에 7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쳐 무려 6,300불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1995년 1만 불 돌파 이후 이듬해인 1996년도만 겨우 1만 불 대를 유지한 이후 추락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98년을 고비로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여 2000년에 다시 1만 불 대로 재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축산물 물가지수는 1990년 이후엔 1980년도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나 이는 다른 공산품이나 부동산 가격 등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난가는 1991년 평균 특란 1개당 58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해 오다가 1997년 평균 86원, 1998년 평균 98원, 그리고 급기야 99년 2월엔 다시 한번 100원대를 넘어서 113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 100원선을 넘어서 본 난가는 조금만 탄력을 받으면 쉽

게 100원대를 넘어서는 가격탄력성을 갖게 될 것 같아 양계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난가의 진폭은 더욱 작게, 주기(싸이클)는 보다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총체적인 생산조절 노력이 생산자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농·축산인들에게 영원한 숙제가 될 지 모를 중간유통마진 축소방안은 여전히 우리의 관건이다.

몇 년 전에 조사된 계란의 유통형태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7에서 보듯 생산자 직접 판매는 겨우 1% 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부들 대부분이 아직도 재래시장에서 계란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가지 다행스런 점은 GP(Grading & Packing: 계란 선별 및 포장) 위생 처리된 계란의 유통비율이 높은 백화점 및 할인점에서의 판매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위생란의 판매비율이 아직도 가까운 일본(90% 이상)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로서는 중간유통마진을 극소화하고 대신 신선한 계란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제의 확산에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표8에선 계란의 유통마진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수취율'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농가수취율'을 더욱 올리는 한편 수취가격 역시 고시가격의 얼마 다운(Down)이 아닌 실제 업체 납품가격 또는 년중 고정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산란계 농가의

수익성 및 계획생산체제는 더욱 개선되리라 본다.

즉, 수집 반출단계를 한 단계만 줄더라도 농장에 약 6%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로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이 산란계 3만수 규모의 농장이라면 년간 약 4200만원(평균 산란율 80%, 평균 난가 80원으로 계산 시)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9에선 1991년도부터 대한 양계협회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정해 제시하고 있는 계란 생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1998년도엔 의외로 발표된 생산잠재력에 비해 실제 생산량이 매우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생산잠재력 : 103억 개/ 생산 추정치 : 82억

표7. 가계소비 계란(식탁란)구입처별 구성비(단위 : %)

연 도	1996	1997	1998(p)
1. 백 화 점	14.2	14.7	14.0
2. 할 인 점	1.4	2.9	6.0
3. 중,소형 슈퍼	3.8	3.8	4.0
4. 생산자 직판	0.6	0.7	0.8
5. 재래시장	80.0	77.9	75.2
계	100.0	100.0	100.0

표8. 계란의 유통마진 분석표(단위 : %)

구 분		산지 → 서울	산지 → 지방도시	평 균
농가 수취율		82.1	81.8	82.0
유통 마진율	총마진율	17.9	18.2	18.0
	소 비	6.4	4.9	5.6
	이 율	11.5	13.3	12.4
유통 단계별 마진율	수 집 및 반출단계	비율 4.1 이윤 1.6	2.7 3.2	3.4 2.4
	소 매 단 계	비율 2.3 이윤 9.9	2.2 10.1	2.2 10.0

\* 축협 중앙회 자료

개) 물론 확정된 각종 데이터를 근거자료로 쓴 추정치가 실제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특히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는 어느 누구도 예측 못했던 사태였으며 따라서 그 여파로 자금난에 봉착한 일부 대규모 양계단지의 도산 및 병아리 입추 취소 등의 변수가 게재되어 그 당시 생산잠재력은 컸으나 실제 생산량은 줄어드는 등 1998년엔 특히 예측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ND(뉴캐슬병), 가금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생산성에 직결되는 각종 질병들의 끊임 없는 발생이 또한 계란생산량 저하의 주범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계란생산 잠재력 추정치는 보다 세밀한 요소까지 효과적으로 대입하여 추정한다면 실제 생산량의 근사치에 이르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양축가 여러분들께도 향후 농장 입추계획 등에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옛 말이 있듯이 계란이 아무리 우수한 완전식품일지라도 그 우수성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거나 매력 있게 포장해 놓지 못한다면 그만큼 상품성이 떨어져 소비지들로부터 외면 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한 수입축산물의 판매부진을 기회로 삼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더욱 널리 홍보해 역(逆)으로 계란 소비를 더욱 늘려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표9. 계란생산 잠재력 변화 추세(단위 : 백만 개)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p)
수 량	7,278	7,107	8,339	8,275	7,817	8,047	8,575	10,298	9,600
증감율	100	98	115	114	107	111	118	141	132

(P) : 추정예상치 . \* 대한 양계 협회자료

표10 에서 보듯 필자가 직접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계란 포장단위는 역시 10개/팩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108 품목/총 135품목 중) 최근엔 12개, 15개, 20개 등 다양한 포장형태도 출현하고 있는데 제품의 단위가격 계산이 힘든 점이 문제점으로 보이긴 하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포장은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해 계란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리란 생각도 든다.

한편 판매가격은 역시 100~200원/개 수준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00원/개 이상의 황금알(?) 품목도 9가지나 눈에 띄었다.

물론 일시적인 저난가(低卵價)시기나 매장의 세일기간 중엔 특히나 저가품의 미끼상품으로 이용되는 계란이 많이 눈에 띄곤 했는데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미끼상품, 즉 로스리더(Loss Leader : 백화점 등에서 밀지면서 파는 고객 유인상품)로서의 계란 활용도가 점점 높아져갈 때 한편으로 그 틈새를 찾아 고부가가치 계란의 상품화에 전력하는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바로 요즘인 것이다.

이것은 계란의 등급화화도 관계가 깊다.

예를 들어 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60%~70% 정도는 가장 신선한 상태로 비싼 가격에 팔리 나머지 30~40%의 B급 또는 등의란을 아예 저가의 미끼상품용으로 매장에 공급

해 주는 것도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 방편이 아닐까 싶다. 한편 표10에서 보듯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역시 현대 유통에 있어선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여기서 열거된 전국 브랜드(일명 NB : National Brand)와 개인 브랜드(일명 PB : Private Brand)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브랜드명이 자신의 계란 판매증대에 도움이 될까를 연구해 보시기 바란다. 물론 지방 특수란 및 개인브랜드란 중에는 하루살이처럼 한번 나왔다가 슬며시 사라지는 것들도 적지 않았다.

결국 브랜드명에 걸맞는 우수한 품질과 깔끔한 포장 그리고 최상의 신선도 등이 그 브랜드가 얼마만큼 장수할 것인가를 결정해 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식탁란의 소비증대는 물론 가공란이나 외식산업에서의 끊임없는 계란소비 창출이 최근 위축된 계란업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으로 누구나 다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계란 자조금제도' 역시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 나라 계란 연간 소비량 80~90억 개에

표10. 수도권 일대 브랜드계란 판매실태 분석(기간 1996/10월~1999/7월)

포장단위	6개/팩	10개/팩	30개/팩	기타(12,15,20,60개)	계
품 목 수	6	108	7	14	135

판매 가격	100원미만/개	100원~200원/개	200원 이상/개	계
품 목 수	17	109	9	135

\* 전국적인 브랜드 계란

요드란, 알짜란, DHA란, 에디슨300, 체커란, 체커토코란, 참한계란, 새벽란, SS란, 영양란, 풀무원자연란, 매직란, 디자이너에그, 우방목초란

\* 지방특수란 및 개인농장 브랜드란, OEM(주문자상표 부착)계란

프리미엄에그, 씨암탉란, 수퍼영양OK란, 골드, 내고향특란, 에그플러스골드, 찬마루목초란, 왕란15, 뉴설(雪)란, 해피데이영양란, 스위트홍강화란, 애계원의계란, 애계원QC란, 스위트홍강화란, 참한알, 봉암건강란, 봉암한방골드란, 시골달걀, 알부민란, 실속란20, 목계촌영양란, 항계촌DHA란, 마그넷생생란, EQ란, 금수청초란, 거성한방란, 삼정네카란, 자연촌모닝란, 성진은행란, 성장해초란, 에덴자연란, 한솔란, 참솔란, 철원생란, 공주은행란, 바로오늘란, 방사자연란, 대계타우링란, 토종계란, 초산란, 고센한방란, 계림크리에그, 새롭에그, 맛계란, 비타그린란, 태초란, 두메산골란, 깨끗한 달걀, 초란, 소백인삼계란, 해태니즈100, 건강OK란, 장수란, 농부외아들신선란, 청정란, 특선란, IQ뱅크 바이오란, 태양초란, 유정란, 토박이란, 순란, 오늘란, 탕탕란, 황금알, 네카란, 후레쉬란, 우등생란, 정성란, 알토란, 황토란

개당 1원씩만 모여도 매년 80~90억 원의 자금이 조성되어 이것이 계란 유통 근대화, 계란 우수성 홍보 등 계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1인당 3백개 이상의 계란소비 대국이 되는 것도 그리 먼 장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근거도 없는 엉터리 특수계란, 닭똥을 비롯한 이물질이 덕지덕지 묻은 비위생적 계란,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자주보이는) 깨보면 좌-악! 퍼져 버리는 계란, 등등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것들이며 계란자조기금이 조성된다면 가장 먼저 뿌리뽑아야 할 우리 업계의 중요한 숙제인 것이다. **양계**